전호근 <장자, 그 신랄한 패러디의 세계>

8강 덕이 충만한 사람들(德充符) Ⅰ: 덕충부와 다이앤 아버스(Diane Arbus)

◆ 1교시 충만한 덕에 대하여

▲ 덕충부의 의미

오늘 장자는 덕충부(德充符), 덕충이란 말은 덕이 충만하다는 뜻이죠. 덕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덕으로 가득한 사람의 부호, 표시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의 외모를 보았더니만 그 사람의 내면에, **덕은 내면적 가치**란 말이에요. 내면이 얼마나 충실한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외모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가득한 건데, 이건 유가, 도가 이런 걸 막론하고 덕이라고 하는 거는, 이 큰 德자는 일단, 득지이심(得之이心), 큰 덕이라고 이렇게 쓰지만 이걸 얻을 득자와 똑같이 책에서 득지이심으로 봐요. 마음속에서 어떤 가치를 득, 터득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건데, 물론 마음속에서 얻은 거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일종의 문화적 표현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덕이 훌륭하다는 것이 바깥으로 표현이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요. 어쨌든 동양에서는 덕으로 표현하는 건 여러 가지 양식 중에서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시경』, 충만의 기원

일단 충만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 충만한 거냐. 내면에, 몸속에 충만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배부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밥을 좀 배불리 먹었더니 졸리더라고요. 배부르다는 표현을 가지고 덕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 중의 하나인 『시경(詩經)』에 보면요. 시경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취이주(旣醉而酒)하고, 이미 취, 취했다. 이주, 술로 취했다. 술을 마시니까 취하는 건 당연하겠죠. 이미 술로 취했고, 기포이덕(旣飽以德)이라. 그리고 덕으로 배부르다. 이미 술로 취한데다가 이미 또 덕으로 포, 배부르다. 그 다음에 기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군자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이미 술로 취한데다가 덕으로 배부르기까지 하니까 그 군자의 아름다움을 군자만년(君子萬年)의 군자여, 만년토록, 만세토록 해 세자를 쓰

www.artnstudy.com

나 해 년자를 쓰는 거나 같습니다. 군자여 영원토록 개이경복(介爾景福)이라. 너에게 경복, 경은 볕 경(景)자라로도 쓰고, 또 그림자가 생략된, 그림자 영(影)자로도 쓰고, 그리고 여기서처럼 크다는 뜻으로 클 경(景)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개이경복하면 군자여, 영원토록 너에게 큰 복이 있기를 바란다, 기원한다. 경복궁이라고 할 때의 경자가 바로 이 뜻입니다. 경복궁의 경자는 이걸로 잘못해서 기쁨과 복,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경복입니다. 큰 복, 바로 시경의 이 구절을 따가지고 경복이라고 한 겁니다. 그 경복궁이라고 하는 건 만년을 노래하는 거니까, 만년을 노래하면 천자거든요. 천세가 아니고 만세이기 때문에 천년입니다. 너에게 큰 복이 있기를 바라노라, 하는 구절이 시경에 나오죠.

여기 보면 덕이 마음속에 충만한 상태를 배부르다는 상태로 표현을 한 거죠. 먹는 거로 표현을 한 겁니다. 덕으로 배부르다. 덕이 충만하다는 표현과 같은 거죠. 덕이 마음속에 충만하다. **충만하다고 할 때의 충자는 충만, 마음속에 가득 찬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충일, 그리고 바깥으로 넘친다는 뜻으로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된 부호가 바로, 부호, 심벌 이런 게 덕충부의 부자의 뜻이죠.** 어떤 경우에 덕이 드러나는 건가.
이건 이미 배부르다 이랬으니까 배부른 걸로 표현을 한 거죠.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못 먹겠죠. 배부르다고 하는 게 더 이상 먹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시경에 이런 구절이 있고, 이게 만년이라고 하는 게 천세가 아니라 만년이니까 우리나라 경복궁을 지은 것도 사실은, 물론 천자국 지정한 거는 조선 초기 세종 조부터 천자국을 지향하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직접적으로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그게 문화재가 불탔는데 복원한다, 복구한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사실 순 엉터리 용어들이죠. 복원과 복구는 같은 얘기입니다. 복원은 원형대로 복원하다는 뜻이고, 처음대로 복원한다는 뜻이고, 복구는 옛날 있는 그대로라는 뜻인데, 어떻게 옛날 그대로하고, 어떻게 처음 그대로 복원한다, 그건 말이 안 되고, 중수라든가 중건이라든지 이래야죠. 조금 불탄 부분이 불탄 부분 외에 좀 남아있으면 중수(重修), 수(修)라고 하는 게 수선, 수리의 뜻이니까 수리(修理)라든지 수선(修繕)이라든지 이런 뜻이니까 중수라는 말을 써야 될 것이고, 아니면 완전히 다 타서 남아있는 게 없으면 중건(重建)이 되어야 되겠죠. 새로 세웠다면 중건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요즘 용어 중에 그런 거를 엄밀히 따져가면서 쓰는, 쓰지 않는 게 그 뿐이 아니니까 굳이 그걸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나가는 얘기로 용어가 그렇다, 그거고 어쨌든 경복궁을 지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천자국의 기상을 노래한 건데, 이런 정서가 이제 이게 시니까, 시인의 정서가 담겨있는 건데, 그걸 바탕으로 덕이 훌륭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옛날 고대 중국의 제왕들은 이런 식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 덕과 예악

www.artnstudy.com

어떤 규칙을 만들었냐하면, 천자는 한 숟갈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제후는 천자 밑에 있는 공후백자남의 제후들이죠. 제후들은 두 숟갈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사서인들, 대부들은 세 숟갈 먹고 숟갈을 내려놓고, 그리고 사수인들, 일반인들은 그냥 마음대로 먹습니다. 계속이요.
한 숟갈 먹고 숟가락을 내려놔요. 천자가 밥 먹을 때는 한 숟갈 먹고 나서 숟갈을 내려놓습니다. 아, 배부르다, 그러죠. 왜 배부르냐 하면 이미 덕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게 되는 거죠. 아, 배부르다. 내려놓으면 그리고 그냥 굶느냐, 그게 아니고 옆에서 권유하는 유자가 있습니다. 유식(侑食)이라고 그러죠. 밥 먹기를 권유하는 신하입니다. 그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의 첫 번째 가는 사람이 태사(太師)에요. 이때 사(師)는 악사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악사죠. 그 나라의 최고의 악사가 음악을 연주합니다. 음악을 좍 연주하면서 더 드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배부르지만 내가 덕이 풍부하기 때문에 덕으로 배가 충만해있기 때문에 밥으로 배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숟갈 먹고 놨는데, 음악을 연주하며 더 드시죠, 하니까 마지못해 먹고, 그 다음에 아반(亞飯)이라고, 아는 그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태사는 그 나라의 악장이고, 음악의 우두머리고 그 다음 가는 사람인데, 그 다음 가는 사람이 다음으로 먹일 반자, 밥 더 드시라고 권유하면서 음악을 좍 연주하면 또 먹습니다. 그리고 삼반(三飯)이래놓고 이렇게 또 음악을 연주하면 또 먹습니다. **군왕의 일거수일투족에 그야말로 예악이 다 따라다니는 거죠.** 할 만 했겠어요. 밥 먹고 딱 한 숟갈 내려놓으면 음악이 좍 나오고, 또 하고 또 내려놓으면 또 음악이 좍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할 만 하기도 했겠습니다만 허참, 굉장히 번거롭기도 했을 겁니다. 예악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니까, 예악이 『논어』에 나오죠.

▲ 『논어』, 예악과 형벌

名不正 則言不順하고, 言不順 則事不成하고, 事不成 則禮樂不興,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예악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뭐, 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의 시작과 끝, 시작단계에서 삼가기 위해서 예를 갖추어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또 그 일의 성공을 함께, 결과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겁니다.** 근데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예악이 있을 곳이 없죠. 그러니까 예악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명분론, 정명론** 얘기하는데서 나오는데, 이게 제대로 해석된 거는 아직 보질 못했어요. 네가 해라, 그럼 너는 제대로 했냐. 아직 논어번역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禮樂不興 則刑罰不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악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형벌이 적중되지 못한다. 형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일을 했을 때 일이 끝나고

www.artnstudy.com

나면 그 일의 공을 따져가지고 예악으로 위로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과실을 형벌을 통해서 처벌을 하기도 하고, 그런 처벌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방법이요. 그런 식의 이야기들입니다. 어쨌든 그 예악이 이런데 다 발휘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배가 부르다고 하는 걸 통해서 덕이 마음속에 가득하다고 하는 걸, 배가 부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과연 정말 그런 것이냐는 건, 이제 이게 한 숟갈 먹고, 두 숟갈 먹고 내려놓고, 세 숟갈 먹고 내려놓고 이런데, 이대로 따지면요, 만약에 대부가 두 숟갈 먹고 밥숟갈 내려놓으면 이건 불경이 됩니다. 제후에게 불경이 되는 거예요. 제후가 만약 한 숟갈 먹고 배부르다, 이렇게 나오면 천자에 대한 불경이 됩니다. 천자나 한 숟갈 먹고 배부르지, 다른 사람은 한 숟갈 먹고 배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덕이 없으니까. **이런 식의 절차에 맞춰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문화적 배경이** 있는 거죠.

▲ 옛날과 지금의 미덕의 차이

근데 따지고 보면 또 그래요. 역시 『예기』에 나오는 얘긴데, 천자는 하루에 네 차례 성찬을 먹어요. 제후는 세 차례 먹고요. 대부는 두 차례 먹고, 대부는, 네 차례 먹고, 세 차례 먹고, 천자와 제후는 네 차례, 세 차례 이렇게 되어있고, 일반인들은 옹손이라 그래서 아침 저녁 두 끼만 먹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좀 이상하죠. 왜 여기서는 왜 더 많이 먹어요. 한 숟갈 먹고 배부르다고 그래놓고 먹는 횟수는 더 많아요? 약간 기만적 냄새가 약간 납니다. 실제로는 덕으로 배가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괜히 헛 배 부른 겁니다(그냥). 덕으로 배부른 척 하는 거죠. 그러면 인제 반응이 뭐랄까요. 좀 썰렁해지겠죠. 배부른 소리 하는 게 되는 거니까. 졸지에 문화적 표현 자체가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생산력 자체가 아주 낮은 그런 사회에서 배불리 먹지 않고 음식을 남기는, 일부러 남기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알려진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고통, 그 기근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문화적 행위**니까 그러니까 높이 평가했던 겁니다. 지금은 다르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죠. 어떻게 하면 남기지 않고 다 먹는가.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가치가 되었으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달리 봐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덕이 마음속에 가득하다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덕이 내면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도와 덕의 본래 글자와 뜻

원래 도(道)와 덕(德)은 같은 글자에요. 길 도에 이 밑에 있는 게 길입니다. 갈림길이죠.

www.artnstudy.com

그리고 이건 머리에요. 머리인데, 이건 눈목(目)자입니다. 눈이고, 눈을 세워놓은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머리카락이에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얼굴 면(面자)입니다. 볼따구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는 빼고, 눈을 강조한 글자인데, **갈림길에서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 길눈이죠. 어디로 가야 목적지로 갈 수 있는지를 아는 길눈인데, 그런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는 거죠.** 지도하는 거죠. 지(指)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고, 지도하는 겁니다.

덕도 마찬가지에요. 덕도 이게 길입니다. 이것도 큰 길이에요. 원래 『설문해자』같은 문헌에서는 갈 행자의 이것은 왼쪽에 있는 건 왼발이고, 왼발로 가는 모양을 그린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오른발로 그치는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했는데, 갑골문에 보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의 큰 길이고, 갈림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오다가 일로 갈지, 일로 갈지, 일로 갈지 헤매게 되어 있는 길이에요. 그런 큰 길인데, 그 길에 열개의 눈이 있는 겁니다. 십이란 뜻이고요. 이건 눈입니다. 그리고 마음 심자 나중에 붙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본래는 이렇게 길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덕자가요. 위에서 하나 내려오면 십이란 뜻입니다. 일, 이, 삼, 사, 오, 육, 칠(이게 열십자처럼 보이지만 이게 일곱 칠자에요), 팔, 구, 그리고 십, 이십, 삼십, 그리고 사십,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갑골문자거든요. 십이고, 이게 사고요. 사십,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천의 열배인 거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여기 하나가 내려온 게 십이거든요. 그래서 열개의 눈이란 뜻이 됩니다. **열 개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길을 살피는 것, 그게 큰 덕자의 본래 글자입니다. 마음 심자 나중에 붙은 거고요.**

길눈이에요. 길눈인데, 그게 나중에 길을 아는 마음, 길을 아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 거로 되면서 결국은 같은 거죠. 길 도자도 눈이 있고, 이것도 눈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큰 덕자를 쓸 때 이렇게도 쓰거든요. 곧을 직자 밑에 마음 심자로도 씁니다. 이것도 열개의 눈이에요. 열개의 눈. 그리고 이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덕자나 이 덕자나 같은 거예요. 그걸 아는 마음, 마음 심자가 나중에 붙고요.
아주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유용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주 유용한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그게 도와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그 덕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부호, 그게 장자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덕충부의 뜻입니다. 그 덕충부의 주인공들이 누구인가 그걸 잘 정리하는 게 성현영의 주석이 잘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잠시 보시죠.

▲ 덕충부에 대한 성현영의 정의

www.artnstudy.com

덕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표시를 갖고 있는가. 어떤 표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덕이 충만하다는 걸 알 수 있는가. 2페이지를 보시죠. 덕이 충만한 사람들이 제목이고요. 덕충부란 이렇게 해서 덕충부 글자의 뜻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도를 아는 자는 누구인가. 그 덕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성현영은 당나라 때 도사죠. 장자주석을 남긴 사람인데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첫째, 권세가 없고, 일무권세, 둘째, 이익이나 재산이 없으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셋째, 매력적인 외모가 없고, 삼무생모라, 생모가 없다. 넷째 뛰어난 언변이 없고, 사무언설이라, 그리고 오모지뢰라. 다섯 번째,지혜나 사려 깊음이 없다. 지적인 능력이 없다. 우리가 흔히 긍정적 가치로 꼽는 다섯 가지가 없다** 에요. 힘세고 부자이고, 힘세고 부자인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어떤 사람 재테크 강의하는데 젤 첫마디가 그렇더라고요. 무슨 케이블TV 채널인데 무슨 채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채널이 굉장히 많잖아요. 돌리다보니까 누가 강의를 하기에 강의하는 게 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가. 재테크 강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만 그 강의가 들을만했어요. 처음의 얘기가 뭐냐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일단 돈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인제 죽 얘기를 하는데, 돈이 사람을 모으고, 돈을 주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돈이라서 그렇지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훌륭한 강의가 될 수 있는 거죠. 돈이라서 안 될 건 없습니다만.

그런데 그 돈이 없어요. 권세, 즉 권력이 없고 또 이록 돈, 이런 게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결국 권세나 이익, 돈 이런 것들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그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건데, 또 다른 게 있죠. 삼무생모라. 이건 매력,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매력인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무언설이라 말 잘하면 또 현혹당하기 쉬운데, 말 잘하는 것도 없다, 이거야. 언설도 없다. 그리고 오모지뢰라 지혜로운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바로 장자 덕충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편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성현영의 견해인데요. 이편의 주인공들은 이러한 다섯 가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감화력을 가진 불구인들입니다. 전부 불구인들이에요.

▲ 사회적 불구와 보통사람

이를테면 다른 편에 나오는 포정, 백정이죠. 백정은 **사회적 불구**거든요. 왜냐 하면 상인이 아니니까. 상인은 상민, 상인, 상놈, 이거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겁니다. 인했다고 놈

www.artnstudy.com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인하면 높은 호칭이고, 자하면 낮은 호칭이고 그게 아니라 상인할 때 이런 의미는 상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용어는 욕이 되는 거고, 옛날 명칭으로 쓸 때는 욕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사람,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수원 화성을 축조하는데 참여했던 상인들의 기록이 있어요. 누구누구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노미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대노미(大奴尾), 소노미(小,奴尾) 이런 식으로, 이건 큰 놈이고 작은 놈이고 그래요. 이놈이 저놈이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냥 이 놈, 저 놈하고 불렀던 겁니다. 이게 특별히 욕이 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다른 이야기고,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고요.

어쨌든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이런 **다섯 가지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화력을 가진 불구인들**이다. 불구인들이라고 하는 게(얘기하다가 말았네요) 상인, 보통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종상업지인 종상업지민(從常業之人 從常業之民)이죠. 상업에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백성, 상업이 뭐냐. 농상(農桑)입니다. 농사짓고, 뽕나무 밭 일구어서 길쌈하는 것, 뽕나무 심고, 누에 쳐서 길쌈하는 것. 삼베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일정한 직업, 곧 농업에 종사하는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상인이고, 그런 일정한 직업이 백인 사람, 없는 사람이 백정(白丁)입니다. 정은 사람을 헤아리는 단위의 인정이에요. 백수(白手) 할 때 이 수나 같죠. 그런 사람입니다. 사회적 불구인이죠.

▲ 남곽자기 이름의 뜻

그리고 남곽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곽자기는 말씀드렸다시피 곽은 외곽, 내성(內城) 외곽(外廓)의 곽이라 그랬죠. 성은 안에 있는 거고, 곽은 외성입니다. 밖에 있는 성이에요. 성 안에 살지 못할뿐더러 성 외곽 바깥, 그중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 남쪽입니다. 북쪽은 북쪽에 있는 자들이 높은 자들입니다. 북쪽에 있고, 북쪽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이고요. 경복궁이고 뭐고 다 남쪽을 향해있죠. 북쪽에 있고, 남쪽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하는 북면해서 섬기고, 천자는 남면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남쪽을 바라보면서 다스리는 거죠. 높은 자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사는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 그게 남곽자기거든요.** 남곽자기로도 나오고, 남백자기로도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 호칭으로 나오잖아요. 남백자기니 남백자규니 남곽자기니 다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신분이 낮은 사람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 덕충부에 나오는 신체적 장애인들과 사진작가 다이앤 아버스(Diane Arbus)

www.artnstudy.com

그리고 여기 덕충부에 나오는 사람들은 신분이 낮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신체적인 불구나 기형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장애의 정도도 엄청나게 심해요. 형용이 잘 안될 정도로 심한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감화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감화력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제가). 다이앤 아버스라는 사진작가 있죠. 사진작가 중에 보면 원래 남편은 산업사진 모델 사진 찍고, 광고 사진 찍고 그랬는데, 다이앤 아버스는 남편이 사진작가인데, 나중에 사진을 찍는데 주로 트랜스젠더나 난쟁이나 거인이나 뭐, 또는 기형인들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애정을 느끼는 이야기를 다이앤 아버스가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가장 고귀한 사람들이란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그만큼 그 사람들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게 자연스러울 정도로 깊이 있게 알지 못하니까 하는 얘기고요. 그게 어떤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장자를 읽어보고, 아버스 사진도, 사진은 볼 기회가 없으면 다른 시간에 또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감화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www.artnstudy.com